

트랜스젠더 해방: 때가 된 움직임 (1/5)

Transgender Liberation: A Movement Whose Time Has Come.
New York: World View Forum, 1992.

레슬리 파인버그(Leslie Feinberg)

백소하 옮김

강건영 감수

역자 해제

이은용 작가님, 김기홍 선생님과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떴습니다. 이 너머에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폐단을 뿌리 뽑고 새로이 다스리겠다고 큰소리치는 이들이 눈 하나 깜짝 않고 가한, 새롭지 않은 살인입니다. 한 번도 뵈지 못한 분들의 죽음에 설친 밤인데 유달리 공허합니다. 개인의 흥미로 옮기기 시작한 글을 이렇게 붙잡고 위안으로 삼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파인버그는 이 글에서 트랜스젠더의 억압과 해방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글의 큰 흐름은 여러 학자의 논의를 빌려, 모계 공동 사회가 점차 해체되며 여성의 배제와 노동의 착취가 전개되는 계급 갈등의 역사를 차분히 훑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트랜스젠더의 역사를 배치하여, 파인버그는 트랜스젠더가 처한 탄압과 이에 맞선 트랜스젠더의 저항을 가부장적이고 경제적인 계급 지배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살핍니다. 강화되는 성별 이분법뿐 아니라 자본주의로 인해 가능해진 도시 노동이라는 조건 역시 패싱의 탄생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나, 다양한 트랜스젠더 관습 및 실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탄압을 모계 공동 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봉건 지주의 공격으로 보는 접근이 그 예시입니다. 파인버그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트랜스젠더 공동체가 으레 규정되듯 새롭고 부차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새로이 나타난 “제도화된 억압과 편견”이 되려 쫓아낸 역사의 일익(一翼)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파인버그가 상상하고 제안하는 트랜스젠더의 혁명적 잠재력은 아무리 좁게 잡더라도 지배 계급의 오래된 유산인 “분할 통치 전술”을 끝낼 힘입니다. 계급과 젠더, 성애의 전선에서 항상 탄압의 대상이자 저항의 주체로 나란히 섰던 트랜스젠더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절대 당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이 보편타당한 명제가 되어 지배를 안정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이들과 함께 잊힌 공동전선과 연대의 기억을 더듬는 나비의 날갯짓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올 돌풍은 예컨대 만민의 해방을 위해 맑스와 파이어스톤이 역설한 생산수단/생식수단의 장악과 같이 강렬하고 근본적이겠지요. 지독한 혐오 한복판에서 용기를 내신 분들을 기리며, 이 글이 위로와 자긍심, 그리고 혁명의 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The Transgender Studies Reader(2006)에 수록된 수잔 스트라이커의 서문:

자신의 특별한 트랜스젠더 존재양식을 드러내기 위해 "s/he"나 "hir"¹⁾ 같이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그것이 지난 10년 간 제한적이거나 널리 쓰이게 한 레슬리 파인버그는 현대 트랜스젠더 연구의 근본이 되는 인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 옮긴 그의 영향력 있는 소책자는 (비정치적이고) 오래된 용어인 트랜스젠더를 찾아 새롭고 급진적인 의미를 불어넣었다.

이전까지 “트랜스젠더”는 대개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생활하지만, 성기 변형 수술을 거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을 지칭하였다. 파인버그의 재정의에서, 이 용어는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서로와 함께 혁명적으로 합작하기 위해 호출된 억압받는 소수자들(성전환자, 부치 레즈비언, 드랙퀸, 크로스드레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팬젠더”²⁾ 운동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소책자는 유사하지만 좀 더 감동적으로 파인버그의 삶을 각색한 『스톤 부치 블루스』(*Stone Butch Blues*)에 이념적이고 역사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해당 소책자는 단행본 길이의 두 후속 논의인 『트랜스젠더 전사들』(*Transgender Warriors*)과 『트랜스-해방: 분홍색과 파랑색을 넘어』(*Trans-Liberation: Beyond Pink and Blue*)로 이어졌다.

광범위의 문화와 역사적 시기로부터 끌어온 여러 사례를 통해 한 명의 마르크스주의자인 파인버그는, 젠더 변이³⁾들을 향한 현대의 널리 퍼진 억압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효과인 반면, 전자본적 부족 및 농업 사회의 트랜스젠더들은 존경받고 명예롭게 여겨졌다고 주장한다. 그 특유의 역사 이론이 트랜스젠더 공동체에서 넓은 지지를 얻지는 못했으나, 그의 저작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요청하는 강력한 방식, 즉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되찾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현재의 투쟁에 그 앎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헌신적이고 고마움을 가득 느끼는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다. 이는 현대 트랜스젠더 이론과 운동의 중요한 시원적 텍스트이다.

이 소책자는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이름이 없는 억압의 역사적 발흥을 추적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여기서 “man”이 만들어낸 젠더의 경계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젠더: 해부학이 아니라 자기표현.

우리는 평생 섹스와 젠더가 같은 뜻이라고, 남성은 “남성적”이고 여성은 “여성적”이라고 배웠다. 분홍색은 여자애들 것이고 파란색은 남자애들 것이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는 익혔다. 하지만 세기의 전환기에 이 나라에서, 파란색은 여자애들의 색이고 분홍색은 남

1) (역자주) 이후 스트라이커가 파인버그를 지칭할 때 hir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를 전부 “그”로 옮긴다. 이는 “그”가 일본어의 인칭 대명사 “彼女”에서 파생된 “그녀”가 보급되기 전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던 점에서 착안한다. 같은 이유로 본문의 he와 she 역시 그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명사의 성별이 강조되는 경우에 한해 “그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역자주) pangender. 셋 이상의 젠더를 경험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 용법으로 유명하나, 여기서는 “all-gender”와 같이 범(凡)젠더, 즉 여러 젠더를 아우른다는 뜻의 형용사로 쓰였다.

3) (역자주) gender-variant people. 젠더 이분법에 제한되지 않는 자기표현을 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자애들의 색이라고 여겨졌다. 단순화되고 뻣뻣한 젠더 규범은 영원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관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성적으로” 여겨지는 남성들이나 자기표현이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범위에 속하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잘못은 없다. 문제는 이 좁은 사회적 제약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충과 폭력을 마주한다는 데 있다.

이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엇이 “표준”이 되어야 할지 누가 정했나?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표현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원시 공동 사회가 트랜스젠더화된⁴⁾ 이들을 높이 공경했음을 알면 놀랄 것이다. 신흥 지배 계급은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것이 그 반대라고 선포하기 위해 피비린 내 나는 사회운동을 벌여야 했다. 지배 엘리트층이 사회에 떠민 편견은 지금도 건재하다.

그러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에 지독한 사회적 처벌이 따르는 사회에서조차, 인구의 상당부는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이 존재할 다양한 방식이 있음은 자명하다. 자연의 모든 것은 연속체다.

우리를 묘사하는 어휘의 대부분은 베고 지지는 말들이다.

내가 십 대 때 버팔로의 공장에서 처음 일할 때, 나같은 여자들은 “남자 같은 여자들”(he-shes)이라고 불렸다. 공장의 “남자 같은 여자들”은 대개 레즈비언이었지만, 우리는 성적 지향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젠더를 표현한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넓은 범위의 “젠더 무법자들”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다른 말들도 있다. 의상도착자⁵⁾, 성전환자, 드랙퀸과 드랙킹, 크로스드레서, 불대거, 스톤 부치, 안드로진, 디젤 다이크 혹은 베르다쉬⁶⁾—유럽 제국주의적 명칭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고르지 않았다. 이 말들은 우리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 자긍심을 함축하는 이름, 우리를 명예로이 여기는 언어 없이 억압에 싸우는 건 어렵다.

4) (역자주) 원문은 “transgendered”. 파인버그가 transgendere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근래 transgender를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다. 예컨대 transgender man이 남성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지시한다면, 본문에서 transgendered man은 지정성별이 남성임을 가리킨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파인버그가 transgendered라는 표현으로 단순히 수동성이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에 사용되는 “transgender”의 용법과는 다르기에 이렇게 옮긴다.

5) (역자주) 본문에서 “transvestism”, “transvestite”는 전부 “의상도착”, “의상도착자”로 옮겼다. 이는 transvestism이라는 단어가 transsexualism과 마찬가지로 병리적 규범과 규범 외부의 정체성 및 실천을 동시에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서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transsexual”은 성전환자로 옮겼다.

6) (역자주) berdache. 여러 아메리카 선주민 문화에서 기존의 성별이분법을 벗어난 의례적 역할을 맡은 인물들을 칭하던 표현. 하지만 남성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쪽을 지칭하던 불어 bardache와의 연관성, 서구 인류학의 식민적 명명법이라는 지적 등을 이유로 1990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일어난 동성애자 선주민 집회에서 two-spirit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근 수년, 간혹 젠더 혹은 트랜스젠더 공동체라고 불리는 한 공동체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다양한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우리 자신의 자기 정의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책자에 쓰인 언어는 젠더 공동체가 연합하고 조직되면서 빠르게 구식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신이 나는 문제다.

우리는 이 소책자에 쓰인 말들이 편견과 잔학 행위에 맞서 싸울 도구로, 이 나라의 노동하고 억압되는 사람들의 대다수에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골랐다. 우리는 얼마나 불충분하든 간에,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가 견디는 억압에서 비슷한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말들을 찾으려 한다. 또 우리는 두 성별만을 허용하는 언어에서 명확함과 감수성을 찾으려 애쓰며, 대명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깊이 고민하였다.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은 공통의 언어, 뻗어나가 더 넓은 이해를 얻으려는 도구를 주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적 운동에서 주로 차단되었다.

현대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을 낳은 뉴욕시 스톤월 주점에서 벌어진 1969년의 항쟁⁷⁾을 이끈 것은 게이 의상도착자들이었다.

그러나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투쟁하는 게 변화를 향한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진보적 운동을 설득해야했던 만큼, 트랜스젠더화된 공동체도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에 동일한 설득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남성적인” 여자가 레즈비언이고 모든 “여성적인” 남자가 게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해다. 모든 레즈비언 및 게이 “가로질러” 젠더화된(cross-gendered) 것은 아니다. 모든 트랜스젠더화된 여성 및 남성이 레즈비언이거나 게이이지는 않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레즈비언 및 게이 공동체의 끄트머리로 오해받는다. 이 거대한 두 공동체는 실제로는 일부 겹칠 뿐인 원과 같다.

이 두 개의 강력한 공동체 내의 억압은 같지 않지만, 우리는 공통의 적을 마주한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레즈비언 및 게이 남성을 향한 편견과 같이, 젠더공포증은 우리를 갈라두려 한다. 통합은 우리의 힘을 오직 늘릴 뿐이다.

단결은 억압이 어떻게, 왜 존재하며 누가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지에 관한 이해에 기초한다. 인간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불평등, 편견, 그리고 불관용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다.

그러한 투쟁의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신에서, 우리는 역사의 회전모형, 칭송을 받건 비

7) (역자주) 스톤월 항쟁(Stonewall Rebellion). 1969년 6월 28일 경찰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월 주점(Stonewall Inn)’을 습격해 성소수자들을 물색하고 체포하자, 이에 반발한 이들이 저항하면서 벌어졌다. 경찰과의 직접적인 충돌에서 언론과의 소통에 이르는 다양한 사건이 전개되었고, 이후 성소수자 운동 단체의 설립 및 퀴어 퍼레이드 개최를 이끌었다.

난을 발견, 베르다쉬의, 트랜스젠더화된 이의 길을 걸어간 여남의 공통성에 관한 견해를 내놓는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운다. 들어라. 우리는 들리기 위해 몸부림친다.

트랜스젠더는 억압에 선행한다

재즈 음악가 빌리 틱톤(Billy Tipton)은 1989년에 향년 74세로 숨졌다. 그는 자신의 음악보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폭로 때문에 기억될 것이다. 틱톤은 병원에 가서 이 사실이 알려질 일을 각오하는 대신 출혈성 궤양을 치료하지 않아 죽었다.

그의 죽음 이후 논쟁이 시작되었다. 틱톤은 그저 남성지배적 업계에서 뮤지션으로 일하기 위해 음악가로 일하기 위해 남자로 살았나, 아니면 레즈비언 억압 때문에 남자로 살았나?

여성 억압,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 억압은 여성이 생존을 위해 남성으로 패싱하도록 강제하는 공고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트랜스젠더화된 여성, 그 안에서 극심한 고충과 위험을 견뎌야 하는 계급 사회에서 너무도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을 배제한다. 이러한 여성의 많은 수가 살기 위해 “패싱하도록” 강제된다. 물론 많은 트랜스젠더화된 여성은 경제적 불공정, 그리고 많은 경우 반(反)레즈비언 억압이라는 뼈저린 부담을 짊어진다. 이러한 요인은 트랜스젠더화되지 않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적인” 여성도 패싱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적인” 여성이 조금이나마 인지되더라도, 이들이 퇴폐적인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며 진정한 평등이 성취될 때 이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 암시된다.

새로운 건 “패싱”이다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은 언제나 여기 있었다. 이들은 억압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그저 억압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은 **패싱**이다. 패싱은 숨는 것을 뜻한다. 패싱은 비가시성을 뜻한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자신의 젠더를 폭력의 위협이나 비난 없이 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셀 수 없이 많은 여남의 자기표현은 할리우드의 정형(定型)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자신의 성별과 “맞지 않는다.” 일부는 이들이 겪는 탄압과 추방 탓에 수면 아래로 사라지거나 “패싱”하도록 강제된다.

현재 모든 젠더 교육은 여성은 “여성적”이고, 남성은 “남성적”이며, 이 두 독 사이에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가르친다. 여남이 자신을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트랜스젠더는 억압보다 이전에 비롯된, 인간 표현의 매우 오래된 형태이다. 한때는 명예롭게 여겨졌다. 분할 통치 전술에 기대는 착취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 때, “가로질러 젠더화된” 청년, 여남이 모든 대륙에서 자기 공동체의 존중받는 일원이었다는 건 인류 역사를 훑기만 해도 증명된다.